



—그 多角經營과 海外 進出 戰略 ③

스위스네슬社

全 세계에 販賣網

周 永 錫

(時事通信 社會部次長)

「네스카페」로 유명한 네슬社는 스위스의 소도시 베베에 本社를 두고 있다. 그러나 동사의 사업은 飲料, 우유제품에서부터 菓子, 통조림, 冷凍식품, 인스턴트식품등 온갖 종류의 加工식품에 이르고 있고 전세계에 事業網을 뻗치면서 시장점유율이 대단하다.

세계의 식품업계에서는 유니레버(英·和蘭) 제너럴·푸즈(美)와도 맞먹는 기반을 굳히고 있는 유럽을 대표하는 多國籍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바로 이 네슬社가 최근 수년동안 對美진출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련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73년 冷凍식품과 호텔, 레스토랑업에서 이름있는 스테파·푸즈社를 買收한데 이어 75년에는 전부터 자본참가중에 있던 통조림회사인 리비·맥베일·리비社의 全株式을 매수했고, 77년 醫藥品의 명문인 알콘社를 매수하는데 성공했다.

더우기 동사의 對美공세는 기존기업의 매수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미국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美네슬社나 그 系列企業들도 저마다 적극적으로 시장확대책을 전개하여 큰 성과를 얻고있다.

오일쇼크이후 유럽산업계는 장기적인 불황과 勞使분규등 불안요인이 고조됨에 따라 對美投資가 성행하기 시작했으며 새로 子會社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건설하는 것보다도 기존기업을 매수하는 경향이 많은데 네슬社의 對美進出도 이같은 투자분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다.

네슬社는 스위스인인 양리·네스트레씨가 고안한 乳兒用粉乳를 사업하기 위해 1866년 창설되었다.

이 粉乳는 母乳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던 많은 乳兒를 구제했고 전세계의 어머니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았고 16세기 말에는 이미 미국에 수출되어 넓은 시장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네슬은 그후 치즈, 초콜릿, 「매기」포로 널

리 알려진 인스턴트·스푸등을 판매하는 한편 30년째부터 코피의 保存기술연구에 착수, 다년간에 걸친 노력끝에 인스턴트코피「네스카페」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2차대전 이후 네슬의 사업은 각종음료나 加工食品, 통조림등으로 확대해 나갔으며 이들 제품은 모두 네슬의 미국에서의 지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특히 63년 통조림업계의 유력기업인 리비·맥네일 리비社에 20%의 자본참가로 미국에서의 식품사업확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에 이르렀고 77년 전체매상고는 1백억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유럽이 47% 미국이 20%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와같이 對美市場확대에 계속 주력하고 있기는하나 네슬社는 여전히 스위스의 회사, 혹은 유럽계회사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가령 본사가 스위스의 지방도시에 있고 근무연락이나 출장에 불편을 겪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기업과 같이 전용항공기라든가 운전사가 딸린 승용차도 없다.

社長이 취리히나 제네바에 출장을 가더라도 스스로 자동차를 몰고 다닐 정도다.

회사의 분위기도 유럽의 「촌뜨기 회사」면 어디서나 볼 수 있듯이 매우 가족적이다. 평생 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이 많고 2대 3대에 이르는 종업원도 적지않다. 종업원에 대한 후생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갖가지 위로행사가 자주 벌어지는가 하면 停年, 退職者의 年金도 많고 회사식당이나 시설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도 있다.

이같이 가족적인 분위기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네슬社는 또한 철저한 국제적인 성

격으로도 소문나 있다.

가령 본사직원 40%가 외국인이며 중역에도 몇명의 외국인이 있다. 현재의 社長 아르투르·플러(57)씨는 스위스사람이지만 前任者는 프랑스사람이었고 그 이전에는 이탈리아, 미국사람이 차지하기도 했다.

社內에서는 伊, 獨, 英, 스페인등 4개국어가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다.

多國籍企業이 모두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네슬만큼 철저한 기업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평이다.

全世界 50여개국에 3백의 공장을 갖고 있고 매상의 96%를 해외시장에 依存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동사의 국제성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多國籍企業의 경우, 대개 母國과 밀착되어 外國人의 침투에 저항을 보이게 마련이지만, 네슬社는 例外인 것이다. 바로 이런 國際性이 美國시장에 중점을 두고 세계전략을 수립하게 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77년 네슬社는 매상고에서 전년비 24% 증가를 기록했고 이윤면에서도 최근 수년간 경쟁자인 유니리버나 제너럴·푸즈社를 앞질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네슬社가 앞으로도 계속 이같은 好調를 유지하면서 다국적기업으로의 면모를 유지해 나갈는지의 여부는 美國市場에 力點을 둔 세계전략의 成敗에 달려있다.

〈社勢메모〉

스위스에 本社를 둔 世界的인 食品會社 네스카페」등 인스턴트食品으로 유명.

77년 매상액 1백억달러, 종업원 13만7천명 포춘誌랭킹(미국제외) 19位

有害食品 근절하여 健康社會 이룩하자